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4.(월) 10:00 배포 2023. 7. 24.(월)

산업단지 폭우 대응현장 긴급점검

- 장마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점검 및 철저한 현장 대응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산업단지 수해 예방을 위해 7. 24.(월) 오전,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인근 하천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철저한 비상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

이번 장마는 주말에 재개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 특히 인천은 어제인 23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100㎜ 이상의 비가 내려 부평 지하차도·굴다리 등이 침수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50~1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남동산업단지는 인근에 승기천이 흐르고 있으나, 빗물을 저장하여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시설인 유수지가 구축되어 있어 이번 폭우에도 불구하고 아직 범람 피해가 없으며, 입주기업의 피해 접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늘 이창양 장관은 인천 남동 산단의 승기천과 남동1유수지를 방문하여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하고, 배수펌프장 정비 현황 등 범람 방지 시설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 인천광역시·연수구·남동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장마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미리미리 산단에 수해방지 시설을 구축하고, 중앙·지방·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한 덕분"이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해 대응에 빈틈없이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440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현장점검 개요**

□ (목적) 인천남동산단의 폭우 대응현황 점검을 위해 취약지역인 인근 하천과 하천 범람 방지 시설을 점검

□ (일시) '23. 7. 24일(월) 10:00~10:40 (40분)

□ (점검지역) 인천남동산단 인근 하천 **승기천** 및 **유수지**

□ (참석) 산업부 장관, 산단공 이사장, 인천시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57	-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주차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	인력개발원 주차장 이용
09:57~10:00	(3')	·도보 이동 (인력개발원→승기천)	인력개발원 주차 후 도보 이동
10:00~10:15	(15')	·**승기천 현장 점검** (남동구 논현동 453-8)	장마 대응현황 브리핑 및 승기천 유량 점검
10:15~10:28	(13')	·차량 이동 (승기천→유수지 남동배수펌프장)	남동배수펌프장 인근 주차
10:28~10:40	(12')	·**유수지 현장 점검** (남동구 아암대로 1039, 남동배수펌프장)	하천 범람 방지 시설인 유수지 배수 펌프장 점검